

# 여야 '사이버 검열 논란' 공방 확산

### 野, 박대통령 겨냥 공세 강화 與, 사찰의혹 비화 차단 총력

검찰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연일 확산하면서 15일에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겨냥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인 반면 새누리당은 사찰의혹 비화 차단에 주력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이 궁금하지만 국민은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의 공무 7시간이 더 궁금하다"며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검경의 초법적인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휴대전화 도청한다고 난리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키워놓은 IT를 박근혜 정부가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SNS·통신 검열진상조사위'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의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며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며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15일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번 사태가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사이버 검열'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거론하는 데 대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너무 앞질러 가서는 안 된다"면서 "아직은 성급하고 당분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검열이라는 것은 자기 및

대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고, 사이버 검정은 판사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영장 발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서 민주국가에 없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결국 범죄혐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범인의 영장을 받아서 적법절차에 의해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무슨 상시적인 감시를 하는 양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사찰과 국민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 결성을 제안한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 21만6894㎡ 공군 軍시설 점유 면적의 57% 차지

### 권은희 의원 "조속히 이전해야"

공군이 군 시설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공·사유지 면적의 57%가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방부의 '공유지 및 사유지 점유현황' 2806건을 제출받아 분석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군이 군 시설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사유지 면적은 총 38만1032㎡로 이 가운데 방공포대사령부 예하 무등산 방공포대(공군 8331부대)가 21만6894㎡를 점유해 공군 전체 점유 면적의 57%에 달했다.

무등산 방공포대처럼 현재 국립공원 내에 군 부대가 시설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경우 공군 방공포대가 건물 18개동에 연면적 3037㎡를 점유하고 있으며, 21



개 국립공원 군 시설이 주둔하고 있는 건물연면적 대비 95.6%를 차지했다. 계룡산국립공원(1개동 95㎡)과 변산국립공원(1개동 45㎡)의 군 시설을 합산한 면적은 전체 대비 4.4%를 불과했다.

권 의원은 "한 해 400만명이 오르는 국립공원 정상을 방공포대 같은 대규모 군사 시설이 점유하고 사례는 무등산이 유일하다"며 "공군이 방공포대 전력을 트럭에 실어서 이동할 수 있고 임시시기 대응도 수월한 M-SAM으로 대체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1187m 무등산 깊은 산중에 방공포대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유지·사유지에 50년간 무상으로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이전하기 위해 광주시민에게 이점비용을 부담하려는 것은 국방부의 무책임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찰 vs 검찰 논란의 중심**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이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1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복도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 부적정 업무 처리 5년간 399건 적발"

### 서영교 의원 감사원 자료 분석

전남도의 최근 5년여간 부적정한 업무처리 적발 건수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건수는 전국 두 번째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15일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관 처분 요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남도는 2009년 59건, 2010년 78건, 2011년 67건, 2012년 88건, 2013년 61건, 올해 6월까지 46건 등 모두 399건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지역은 규모가 전남에 비해 훨씬 큰 경기도(1119건)와 서울시(648건)였다. 광주시는 2009년 9건, 2010년 22건, 2011년 20



건, 2012년 18건, 2013년 44건, 올해 6월까지 5건 등 모두 118건이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4922건의 처분 통보가 있었다.

5년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도 전남도는 76건으로, 경기도(8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에 대한 처분은 실제 국민과 밀접한 문제를 적발하고 이를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감사"라며 "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해임이나 고발 같은 더 강력한 제재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 의원들 카톡방 빠져나가 사이버 망명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사이버 의원총회장이었던 '카카오톡 대화방'이 최근 파장 분위기를 맞고 있다. 당내 계파 논란 등 혼란 상황을 거치면서 대화방 참여가 시들해진 가운데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야에 의원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카톡 대화방엔 2~3명만이 글을 올리는 실정이다.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수십 명의 의원들이 앞 다투어 글을 올리던 때와 비교하면 거의 파장 분위기라는 것. 그나마 올라오는 글들도 국정감사 관련 댓글 정도며 정치적 이슈나 당내 상황에 대한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의원 카톡방에서 가장 활발히 글을 올리던 몇몇 여성 의원들도 '카톡 절망'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의원 카톡방이 이처럼 썰렁해진 것은 카톡방 대화 내용들이 언론에 유출된 게 큰 타격이었다. 의원들 사이에 불신이 퍼지면서 의견 표명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SNS 검열 파문이 일고 카톡 이용자들이 해의 메신저로 갈아타는 일명 '사이버 망명'이 잇따르면서 카톡방은 더욱 썰렁해졌다. 검열의 안전지대로 알려진 독일 소재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에 가입하는 의원들이 속속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정치 조강특위 지역위원장 공모

새정치민주연합 조강특별위원이 15일 첫 회의를 열고 지역위원장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돌입한다. 윤관석 새정치연합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회 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16일부터 21일까지 246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역위원장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강특위는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과 ▲경고·제명 등 징계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 보유자 ▲뇌물, 알선수제 등 범죄 경력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에게는 총점이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송호창 의원이 조강특위에 불러남에 따라 발생한 공석에 대해 당분간 추가 인선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주공항 안전착륙유도장치 미설치...사고 우려"

### 새정치 이연주 의원 국감 지적

광주공항 등 국내 7개 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진입각도를 알려주는 착륙 유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연합 이연주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아 15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김해·양양·울산·포항·사천·원주 등 7개 공항 활주로에 착륙유도장치인 '글라이드 패스'(GP)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글라이드 패스는 항공기 착륙 시 진입각도를 알려주는 장치로 이를 활용하면 안개·바람 등 기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착륙할 수 있다.



이 장치가 없을 경우 조종사와 관제탑이 육안으로 활주로 상황을 확인하거나 수동조종으로 착륙할 수밖에 없어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연·결항률이 높아지고 착륙 시 항공기 안전 사고도 우려된다.

이 의원은 "GP가 없는 상태로 공항을 운영한다면 비행 중 갑작스러운 기상상황 변화에 따라 공항에 진입하던 항공기가 공중에서 착륙대기 또는 회항하거나 조종사의 경험만 믿고 무리한 착륙시도를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NAVER **단비플라워** 등려보수로

##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5층 참조은 인과  
4층 한길 통증 의학과  
3층 신한은행  
2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1층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b>01 부동산 담보대출</b> 최저 3.5%~ 이차, 주택, 상가, 공장, 내차, 원룸, 전·답, 모빌 대출한도 : 최고 60%까지 신용보증 상환방법 : 상환액 연체 / 대출금 상환방법 : 일시상환 (이차대출상 가능)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전입명부, 주민등록, 초본 지 1통 입점도, 신용도	<b>02 햇살론대출</b>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자격 : 신용보증금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최소 저당비 및 근로자 대출한도 :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 : 연 8.01% (취약계층대출) 모 용 : 대출금리 0.95% (신용보증), 0.90% (근로자)	<b>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b>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대출금리 : 최저 4.0%~ (신용보증금 차등 적용) 상환방법 : 일시상환 (이차대출상 가능)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전입명부, 주민등록, 초본 지 1통 입점도, 신용도	<b>04 저당담보, 차량인, 전문직을 위한 신용대출</b> 간편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대출자격 : 저당담보 및 차량인, 전문직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최저 5.0%~ 대출기간 : 최장 5년 특약대출 : 대출금리 금리 추가 인하
---	--	--	--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1인당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정기예탁금	수시 입출금 통장	정기적금
1년 2.85%	18개월 2.9%	3년 2.9%
최대 2.5%	1년 3.1%	2년 3.2%
3년 3.3%	단, 하루를 넘기면 앞선예금 (당첨금 제외)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총장지점: 구도청, 총리, 두리은행, 남상명, 남주영, 유동, 유동, 유동